

지역 소식 통

정읍시,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정읍시가 오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이번 조사는 관내 1만 60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는 조사 결과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정읍시 관내 371개 표본조사구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를 파악한다. 조사 항목은 인구·가구·주택 분야에 대한 55개 항목이다. 시는 조사 대상인 1만 6100가구에 지난 10월 중순 '총조사 대상 가구'로 명시된 조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인터넷(PC·모바일)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를 시작하며, 이 기간에도 인터넷이나 전화 조사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갯벌 숨нат것들의 숨결을 따라서 워크숍' 성료

고창군이 지난 18일 탐사르고 창갯벌센터에서 '고창갯벌 숨нат것들의 숨결을 따라서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일반인 50여 명이 참여해 고창갯벌의 생물다양성 강연과 퀴즈, 한글로 그리는 고창갯벌의 새(한글 생물 그림체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인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갯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관우 한글 생물그림 작가가 진행한 '한글로 그리는 고창갯벌의 새' 프로그램은 한글 자모를 배열해 동식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백제가요 '정읍사', 축제로 피어난다

정읍사문화제 개최... 25일 기념식 · 26일 정읍사가요제

현존 최고(最古)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기리는 제36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는 제18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열리는 데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돼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정읍시와 정읍사문화재단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채수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즐길 거리를 새롭게 보강했다.

축제의 열기를 더할 화려한 공연도 준비됐다. 25일 기념식 축하공연에는



설운도·김다현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꾸민다. 26일에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경연을 펼치는 '정읍사가요제'가 열리며, 초청가수 송가인·이미지가 수준 높은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가 상

시 운영돼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무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돼 언제 찾아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시는 축제장 전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대책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려상감청자 아름다움 알리다'

부안청자박물관, 2025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 참가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중국 강서성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센터에서 열리는 2025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에 부안청자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5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도자 축제로 도자산업과 예술 교류의 중심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려청자의 본향 부안에서 재현한 상감청자와 실용청자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세계 도자 예술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청자산업 발전 및 문화 교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 박람회 기간 중에는 부안 도자문화 홍보, 해외 바이어 대상 판로 개척, 중국 도자기관 및 작가들과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박람회에는 무형유산보유자 사기창 청자 재현 작품과 부안관요 청자 상품, 부안도예가협회 회원작품 및 박물관 뮤지엄샵에 입점한 도예 작가들의 250점의 다양한 청자 작품을 선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중국 경덕진은 세계 도자예술의 중심이자 기술 교류의 장"이라며 "부안청자가 고려 상감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도자 예술과 산업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논농 피해 현장 방문 점검 실시

동진면 · 계화면 논농 재배현장 찾아 농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잦은 강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진면, 계화면 논농 재배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농 습해 피해는 잦은 강우나 장마로 과습이 원인이 돼 뿌리 호흡 곤란, 성장 부진 및 수량감소, 잎 색깔 변화 및 고사 등을 유발한다.

부안군에서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논농 약 1080ha의 피해면적이 확인됐고 지난 9월 중순 이후에도 수확기를 앞두고 잦은 강우가 지속돼 논농 습해 피해 면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량이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공 수확시기를 앞두고 잦은 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가을배추 병해충 방제 · 생육관리 철저 당부

고창군 농정당국이 초가을 잦은 비로 가을배추의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면서 생육관리와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15일까지 강우일수가 25일에 달할 정도로 잦으며 평년 대비 강우일수가 7일 늘고, 일조량은 7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고창에선 가을배추 무름병,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 작목반과 대규모 재배농가와 협력해 현장 중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방제와 예방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름병과 노균병은 과습한 환경과 배수 불량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균병은 잎에 회색색반점이 생기며 점차 황화되고, 심하면 잎이 마르거나 포장 전체가 누렇게 변색되

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무름병은 초기에는 일부 식물체에만 국한되지만 결국기 피해 시 결구가 불량하거나 속이 썩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식시 통풍이 확보되도록 정식거리를 유지해 주고 질소비료 과다사용을 금해야 한다. 또한 발생 초기에 등록약제의 적기살포가 중요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0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안전망 강화 프로그램 구축을 강조하였고, 김승범 의원은 구철로 노령타널, 구 운안발전소, 낙양리 취입수문과 백파비 등의 근현대시설을 교육·산업·관광이 융합된 살아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석환 의원은 군인대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차별 없이 응원하도록 입영지원금 대상을 장교와 부사관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항경

의원은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클린지원단 운영과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과 필터교체 등 지역별 순환 방식의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극대공항 건설과 보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드론 특별비행 승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제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1일부터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28건의 안건을 심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성료

정읍시와 지역 농·축협이 지난 18일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와 농·축협은 축제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부제 동참을 독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의 대표 가을 축제 현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순기 NH농협 정읍시지부장과 관내 8개 농·축협 조합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떡과 식혜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리플렛과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며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정읍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고, 정읍의 발전에 마음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